

# 降神巫服의 袍에 관한 연구

- 서울굿 무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iritual Shaman(Gangsin-mu)'s Po

- in Seoul-gut Shaman's Costume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강사 김은정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Kim, Eun-Jung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서울굿 무복의 변화양상 |
| II. 무복의 이론적 고찰          | V. 결 론           |
| III. 서울굿에 나타난 무복 중포의 형태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survey the system of the Korean *Gangsin-mu* shaman costume and its formative character and to fine out the traditional follow patterns of government officials' attires and *Po*'s meaning of it.

The overall shape of variety '*Po*'s in modern times are similar to the traditional ones, but they differ greatly in size, detail color, and ornamental design.

The sleeves have slits in the armholes, which can allow the hands to be drawn out easily.

In addition, the knot buttons are used in the modern costumes. They are based on different formation skills from those of the traditional

The original color of the shaman's costume is not thier taste in color but symbolic, modern costumes color show the shaman's taste in color.

This change mean a more accentuated visual effect than incantatory meaning. Another reason for color change is also the costume's material. A kind of constituent element uses synthetic fiber in modern times.

주제어(Key Words): 강신무(Gangsin-mu), 무복(shaman's costume), 포(Po)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Kim, Department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575, Korea Tel: 82-62-530-1317 E-mail: kim0234@hanmail.net

## I. 머리말

우리의 전통문화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괴되거나 인위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무속은 급격한 문화변동의 와중에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소멸 당하지 않고 적절하게 변화에 대응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면서 현실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곳은 신을 모셔 놓고 행하는 시기나 목적, 규모, 모시는 제신 등에 따라 많은 무복의 유형이 있고 그 명칭 또한 각각 달라하나 형태에는 일정한 기본이 있다.

특히 각 곳거리에 따라 착용하는 강신무복은 거리의 주신의 상징으로 무복의 포를 달리 착용하는데, 이때 착용하는 강신무복은 대개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입지 않는 전통복이다. 하지만 현재 곳을 진행할 때 착용하는 강신무복은 전체적인 형태는 전통복과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현대무속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복 역시 전통복식(傳統服飾)에 근거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시대에 따라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전통복식이란 무복의 형태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전통복인 원삼(圓衫), 장삼(長衫), 철릭(天翼), 몽두리(蒙頭里), 동다리(同多里), 전복(戰服)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서울곳 무복의 포를 중심으로 곳거리에 따른 구성요소의 형태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강신무복에 나타난 포의 특성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 요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서 한국무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복이 전통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무복연구는 강신무복으로 착용되는 모든 복식의 양상을 일괄하여 고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무복 연구의 방법이지만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강신무복 중 서울곳에서 가장 큰 가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재 실제로 곳거리에서 착용하고 있는 무복에 대한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병

행하여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국립민속박물관 양종승 학예연구원의 소개를 통해 사전 조사대상 선정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이거나, 통계적으로 정확한 무당의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30년이상 무업에 종사한 서울곳 무당 중 10여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곳거리 참관은 2001년 8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특별한 무복을 입지 않는 세습무인 남부지역은 제외하고 강신무인 서울·황해도곳 중에서 전통성이 인정되는 서울곳에서 착용하는 다양한 무복의 포(袍)를 중심으로 무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형태파악을 위하여 10여명의 무당과 면담을 통해 무복 중 착용하고 있는 포를 중심으로 실측하였고, 실제 참관한 곳거리 중 무당 4명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제시되는 서울곳의 무복은 현재 서울곳을 행하고 있는 김유감, 민병숙, 신이행, 이옥선무당의 무복을 대상으로 대부분 곳거리에서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무복인 원삼, 철릭, 장삼, 동다리, 몽두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무당 개인별 복식을 나열하지 않고, 선정된 무당 4명의 무복의 포를 표로 제시하여 상호비교하는 비교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 II. 무복의 이론적 고찰

### 1. 선행연구

지금까지 무복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영자·유효순(1986), 조아란·조효순(1997)은 巫堂來歷문헌에 근거하여 곳의 기본구조, 열두거리에 따른 무복의 종류와 무속도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미경(1997)은 세습무인 진도 셋김곳의 공연과 그에 관한 영상자료들을 통하여 무(巫)와 참여자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무복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한편 이자연(1997)은 중부지역의 채수곳에서 착용되는 무복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사회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유효순(2000)은 현장조사를 통해 홍성 지역의 무당들이 행하는 굿거리와 각거리에 착용하는 무복의 조형성을 고찰하였다. 김은정·김용서(2000)는 제석거리 무복에 대하여 굿거리에 따른 무복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무복연구는 전통복식과 무복의 유형에 따른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굿거리에서 착용되고 있는 무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대에 따른 무복의 형태 변형이나 의미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무복이 일반복식과는 달리 연구에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과 무당이 죽으면 무복을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므로 유품이 남겨져 있지 않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복이 전통복의 형태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진 관계로 전통복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전통복과 무복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연구자도 서울굿 무복에 나타난 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난제는 현대 무복의

형태가 전통복식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된 관계로 현대무복을 전통복과 전통무복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대무복에 전통복식 포의 명칭을 부여하는 데에 다소의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현대무당이 각 굿거리에서 착용하고 무복의 주신(主神)과 전체적인 무복형태를 고려하여 현대무복에 원삼, 철릭, 장삼, 동다리 등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 2. 文獻에 나타난 巫服

한국의 무복에 관한 시각자료로는 조선시대 후기의 풍속화 속의 회화자료와 문헌 중의 사진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단편적이거나 무복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후기에 기록된 궁중발기는 궁중에서 사용된 물품 목록으로 그 내역은 생활기구로부터 옷감·복식관계·음식류·무역품의 내용과 수량을 적은 것이며, 또한 주로 무속관계의 발기들이다. 純祖代부터 高宗代에 집중한 경향이 있으며 일제초 純宗代까지 물품목록으로 복식사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이다(김용숙,

<표 1> 문헌에 나타난 굿거리 순서에 따른 무복

	궁중발기		巫堂來歷		朝鮮巫俗의研究	
	거리	무복	거리	무복	거리	무복
1거리	어실당	홍색철릭, 호수립, 전대	부정거리	흰색저고리, 남색치마	주당물림	흰색저고리, 남색치마
2거리	별군웅	남색철릭, 홍다회	제석거리	백색장삼, 고깔, 가사	부정거리	흰색저고리, 남색치마
3거리	산마누라	남색철릭, 호수립, 홍다회	대거리	남색철릭, 주립, 홍색광대	가망거리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4거리	왕신	홍색철릭, 남색전대	호구거리	면사, 홍치마, 저고리	산거리	남색철릭, 적색호수립
5거리	국대부인	초록저고리, 남색겹치마	별성거리	동다리, 전복, 전립, 청색대	제석거리	백색장삼, 가사, 고깔
6거리	당자부인	연두색저고리, 남색치마	감홍청배	녹색장의, 남색치마, 백색대	성조거리	홍색철릭
7거리	자안아기시	단색저고리, 홍색치마	조상거리	남색철릭,	별성거리	구군복, 남색치마
8거리	호그아기시	황색회장저고리, 홍치마	만신말명	홍색몽두리, 붉은색대	대감거리	동다리, 쾌자, 전립
9거리	말명	옥색저고리, 남색치마	구름거리	홍색철릭, 청색대, 호수립	천왕거리	백색장삼, 가사, 고깔
10거리	승당	황색장삼, 홍색대	창부거리	홍의녹상, 흑색쾌자, 흑색전립	호귀거리	활옷, 홍색치마, 화관
11거리	감악산	백색장삼, 홍색대	성조거리	색동원삼	군웅거리	홍색철릭, 호수립
12거리	세도령	초록중치마, 다홍대	뒷전	홍색저고리, 녹색치마	창부거리	몽두리, 초립
13거리	-	-	-	-	말명거리	흰색저고리, 남색치마
14거리	-	-	-	-	뒷전	흰색저고리, 남색치마

1996: 372). 또한 巫堂來歷은 굿의 절차를 그린 그림과 설명이 있고 각거리마다 무복과 무구, 제상 등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각거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곁들여 있는 조선시대 후기 서울굿의 양상을 비교적 상세히 볼 수 있는 자료이다.(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24)

1930년대 경성지역에서 행해지는 천신(薦新)굿을 현지 답사하여 그 절차를 밝힌 朝鮮巫俗の研究(秋葉隆, 赤松智城, 1937: 76-78)는 당시의 각거리 양식에 따라 착용되는 무복에 관해 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오늘날 서울굿 무복의 원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거리는 무당에 따라 각거리 배치순서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부정거리에서 시작하여 뒷전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구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문헌에 따른 무복을 각거리별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 III. 서울굿에 나타난 무복 중 포의 형태

서울굿을 일명 한양굿이라고도 한다. 서울굿을 한양굿이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울 사대문 안의 굿을 말하지만 사대문 밖의 지역이 이미 오래 전에 서울로 편입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서울굿은 오래 전부터 Gut 문서에 의해 여러 유파로 전승되었는데 Gut문서란 무업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기적인 기술을 포함한 무속행위의 전반적인 무법(巫法)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론적인 지식이란 무속에 관한 일체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역사적 유래를 말하는데 실기적인 기술은 기·예능적인 재주를 가리키며, 문서라고 할 때는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지식에 치중하는 편이다. 문서라는 용어는 무당이나 지역에 따라 신법(神法), 본서(本書), 경문(經文)등으로 다르게 칭하고 있으며 서울굿의 특성은 굿이 깔끔하고, 무악과 무가는 궁중음악과 관련성을 지니며 무가 내용도 바리공주와 같은 궁중이야기와 관련된다(양종승, 1999: 22-24).

이러한 각 무복의 형태를 비교함에 있어 먼저 전통복식인 포의 형태를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 1. 원삼(圓衫)

전통복인 원삼은 조선시대 여자용 예복으로 사용되던 포이다. 이 포는 통일신라시대 당나라의 의복 제도를 수용할 즈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궁중에서는 왕비·빈·공주·옹주가 각기 원삼의 색과 문양을 달리하여 착용하였고, 서민층에서는 공주·옹주가 입었던 원삼을 혼례(婚禮) 때 착용하였다.(조효순, 1995: 298) 현대 서울굿거리에 착용하는 무복원삼 역시 지역이나 무당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거리 중 창부거리에서는 원삼을 착용한다.

<표 2>는 시대별 원삼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조선시대 巫堂來歷에 그려진 전통무복 가슴부위에는 장식이 없는 대가 여며져 있다. 朝鮮巫俗の研究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인 무복에서도 조선시대 무복과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나 다른 종류의 무복소매에서 볼 수 있는 아귀가 없고 색동 한삼을 손에 따로 낀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서울굿거리에 착용한 김유감무당의 무복 원삼 길이는 앞길과 뒷길의 길이가 같거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으며 장식기법이 화려하게 변하고 있다. 장식기법으로는 앞길과 뒷길에 식물문양이나 동물문양으로 자수가 있다. 각거리 중에 볼 수 있는 원삼은 화려한 자수 장식을 더하여 활옷처럼 변형되고 있다.

#### 2. 장삼(長衫)

장삼은 법의의 하나로 편삼(偏衫-상의)과 군자(裙子-하의)를 합해서 함께 만든 법복(法服)이며, 중국에서는 직철(直裰)이라고 한다. 법의는 고구려 말기에는 편삼과 군이 결합된 직철 즉, 장삼 위에 가사를 착용하였다. 和漢三才圖會에 나타난 도복제도에 대해서 직철은 곧 승의에서 된 것이며 직철은 편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즉 승려의 단의(短衣)이

다. 상(裳)은 군자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키면 그것이 직철이다. 직철은 상하를 허리선에서 바느질하여 연결해서 직선형으로 만든 옷으로 송대 은사(隱士)나 문인(文人) 등이 입었고, 또한 사원에서 승려(僧侶)들이 입는 옷이다(임영자, 1990: 173-174). 장삼은 불교적인 신을 모시는 제석거리에서 착용하였다.

〈표 2〉는 시대별 장삼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巫堂來歷에 그려진 전통무복은 하상(下裳) 폭이 넓고 길이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길며 어깨에는 홍색의 대를 매고 있다. 朝鮮巫俗의 研究의 사진자료에 무복 장삼은 진동부위에 아귀가 보이고 양어깨에 걸친 가사에는 금박(金箔)이 찍어져 있어 가사가 화려해 졌고, 가슴에는 홍색광대를 매고 있다. 현대 서울곳거리에서 착용하는 신이행무당의 무복 장삼의 형태는 전통복에 비해 길이가 짧아지고 소매 폭이 넓어졌다. 백색장삼에는 보문양의 자수가 수놓아져 있다.

### 3. 철릭(天眞)

철릭은 고려시대부터 착용했던 옷으로 철릭에 대해서는 악학계범(樂學軌範)에 단첩리(單帖裏)와 방의(防衣)의 명칭으로 소개되어 있다. 철릭은 비상시 걸옷을 벗으면 옷을 갈아입는 번거로움 없이 융복으로 대신 할 수 있었으며 한쪽 혹은 양쪽 소매를 반소매로 만들고 따로 긴소매를 만들어 매듭단추로 연결한 실용적인 옷이었다. 철릭은 의(衣)와 상(裳)을 따로 재단하여 봉제된 옷으로 깃은 곧은 깃이며, 시대에 따라 의와 상의 길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문화관광부, 2001: 71). 착용범위와 신분은 다양하지만 군인이나 하급관리의 통상예복, 전쟁시에는 공복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표 2〉는 시대별 철릭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조선시대 무복으로 巫堂來歷에 그려진 무복 철릭은 직령교인식(直領校任式)으로 길이가 거의 땅에 끌릴 정도로 길었다. 가슴에는 홍색 대를 묶었는데 조선시대 일상복식으로 착용했던 철릭을 비교하면 형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朝鮮巫俗의 研究의

사진자료에서 볼 수 있는 무복 철릭에는 진동부위에 아귀가 있어 팔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현대 곳거리에서 착용하는 이옥선무당의 무복 철릭 깃은 맞깃이며, 진동부위에는 아귀가 있고 수구에는 백색한삼이 붙어있다. 무복 철릭의 형태는 전통복의 길이에 비해 짧고, 가슴에는 넓은 대를 매고 있다.

### 4. 몽두리

전통복인 몽두리는 서민이나 천인계급의 예복(禮服)의 일종으로 만신을 모시는 거리에서 착용되었는데, 조선시대 궁중에서 정재(呈才)를 할 때 여기(女妓)나 무당이 입던 무의(舞衣)인데 몽두의(蒙頭衣)라고도 한다(유희경, 1975: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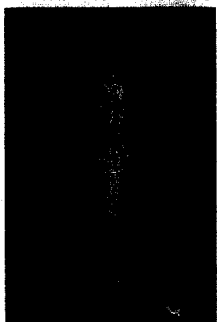

〈표 2〉는 시대별 몽두리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조선시대 巫堂來歷에 그려져 있는 전통무복으로 착용한 몽두리의 소매는 광수(廣袖)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길고 가슴에는 홍색 대를 매고 있다. 朝鮮巫俗의 研究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자료인 무복은 소매의 형태가 두리소매로 변형되어 조선시대 착용한 몽두리 소매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 곳거리에서 착용하는 민병숙 무당의 몽두리 깃 부분에는 잣물림장식을 하거나 자수로 식물문양이 수놓아져있다.

### 5. 동다리

전통복인 동다리를 협수라고 한다. 무당들은 이외에 섭수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전복(戰服) 밑에 받쳐입던 군복의 일종이다. 형태는 뒤가 트이고 주홍색 길에 홍색 착수(窄袖)가 달린 두루마기와 비슷하다. 구군복은 전복과 동다리(협수)가 일습(一襲)으로 전복과 동다리를 갖추어 입는다(안명숙, 김용서, 1998: 96).

조선시대의 巫堂來歷에 그려져 있는 전통무복으로 착용한 동다리는 전통복인 구군복 형태이다. 朝鮮巫俗의 研究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자료인 무복 동다리는 형태는 전통복 동다리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현대 곳거리에서 착용하는 무당 신이행의

<표 2> 시대별 무복 포의 형태

	巫堂來歷	朝鮮巫俗の研究	現代巫堂
원 삼			
장 삼			
몽두리			
철 락			

무복 동다리는 길이나 소매부분에 식물문양으로 자수가 놓여져있고, 깃 가장자리에는 색동으로 잣물림장식을 하였다.

#### IV. 서울굿 무복의 변화양상

무당은 일반인과 구분되는 신권적 초인적 이질성을 과시하기 위해 과장된 영력의 비약 내지는 위장에 필요한 기술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신과 관계를 갖는 특별한 의식과 그에 따르는 복식이 필요하게 되었다.(김태근, 1982: 430) 따라서 무복은 여러 가지 형태, 색,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서 일반복식의 의미와 같은 것도 있으나 종교복식으로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서울굿 참관을 통해 살펴보면 무복에서 착용하는 표의(表衣)는 소매가 매우 넓으며 진동선에 트임이 있어 무당은 트임으로 손을 꺼내는데 길고 넓은 소매는 뒤로 처진 채 무무(巫舞)를 하게 된다. 이는 전통복식과의 차이점인데 이러한 트임은 무무(巫舞)의 용이함과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무복의 깃은 맞깃으로 변형되고 있는데, 이는 굿거리마다 주신을 상징하는 포를 갈아입을 때 입고 벗기에 편하도록 실용성이 가미된 제작법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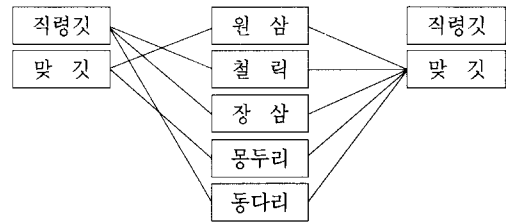
#### 1. 형태의 변화

##### 1) 깃의 형태변화

현대 굿거리에서 착용되고 있는 무복의 변화양상을 원삼, 장삼, 철릭, 동다리, 몽두리의 전통무복과 세부적으로 형태를 비교하면 전통무복의 깃과 달리 현대 무복에 나타난 깃의 형태는 대부분 맞깃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굿거리에서 착용되는 무복의 깃은 이처럼 맞깃이나 직령깃 외에는 다른 형태는 없었으나 연구대상이 아닌 무복 중에는 깃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무복의 깃은 대부분 맞깃으로 변형되고 있는데, 이는 굿거리마다 주신을 상징하는 포를 입고 벗을

<표 3> 깃의 형태

종류	형태
직령깃	
맞깃	



전통무복

현대무복

<그림 1> 깃의 형태변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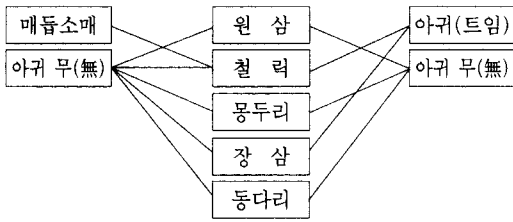
때 착용의 간편함을 위함이거나, 무복을 제작 할 때 용이성을 위해 변화된 것으로 본다.

##### 2) 소매의 형태변화

원삼, 동다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포에는 소매의 진동부위에 트임을 내어 만든 아귀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매는 의복의 어느 부분보다도 인체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위로, 길과 분리되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 무복소매에는 진동선에 트임이 있어 무당은 트임으로 손을 꺼내는데 아귀는 <표 4>와 같이 무무(巫舞)나 무악(巫樂)을 할 때 손을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본다.

<표 4> 소매의 형태

종류	소매(아귀 무(無))	아귀	아귀에 한삼부착
형태			



전통무복

현대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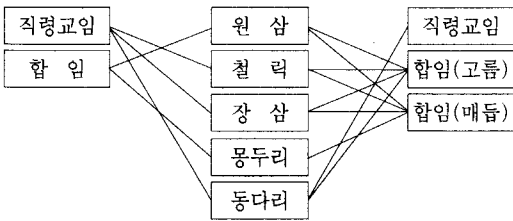
〈그림 2〉 소매의 형태변화도

3) 여밈의 형태변화

현대무복의 여밈은 대부분은 맞깃으로 되어있다. 전통복식의 포에 여밈을 포개는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철릭, 장삼에서처럼 약간만 겹쳐지는 직령교임과 단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부분을 대부분 감싸 겹쳐지는 교임 형태와 원삼처럼 깃 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앞쪽에서 맞대어 여며지는 합임이 있다. 그러나 현대 굿거리에서 착용되는 무복인 철릭과 장삼은 대부분 여밈이 합임으로 변형되었다. 여밈의 형태는 대부분 합임으로 되어 있다. 여밈은 무

〈표 5〉 여밈의 형태

종류	직령교임	합 임	
		맞깃(고름)	맞깃(매듭단추)
형태			



전통무복

현대무복

〈그림 3〉 여밈의 형태변화도

당이나 굿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서울굿 무복에서의 직령교임 대신 합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밈의 변화는 깃의 변화에 수반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복을 착용하고 굿을 행할 때 활동성이 강조되면서 동작을 편하게 하고 굿거리 중 춤사위의 효과를 위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2. 구성요소의 변화

1) 색

굿에서 착용하는 무복에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려한 색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무복의 색은 신(神)에 따라 철릭은 홍색으로, 전복은 남색으로, 장삼은 백색으로, 원삼은 녹색으로, 몽두리는 황색으로 표현한다. 또한 홍색, 청색, 녹색의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무복은 색동 소매가 달린 원삼에 초록색 길이나 홍색 철릭에 남색의 전복, 백색의 장삼에 홍색의 가사 등으로 대조적인 색들을 배치하여 색의 조화를 얻고 있다. 이는 현재에 전해지는 무복의 색이 오방 색에서 유래된 것으로, 포를 상징하는 색은 청색, 백색, 홍색, 녹색, 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이 거처하는 신당(神堂)의 경우에는 모두 울긋불긋한 색으로 칠을 하여 속(俗)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임을 나타낸다. 무복에서 색의 상징적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세계와 관계된 개념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설영환, 1986: 212). 무복의 색 중에서 홍색으로는 홍색치마, 홍색저고리, 홍색철릭, 홍색가사 등이었으며, 원삼이나 동다리 소매색동에도 사용되었다. 청색(靑色)으로는 남색치마, 남색철릭, 남색전복 등이 있다. 백색(白色)의 경우는 백색고깔, 백색장삼이고, 흑색(黑色)은 흑색전복, 흑립이 있으며 황색(黃色)으로는 저고리와 몽두리가 있다.

이와 같이 원색조화를 무복의 용도와 관련시켜 살펴보았을 때 색동에는 길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색동은 굿을 할 때 원색의 시각효과로 주술적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당은 색동이 가진 양성이 음성의 귀신들에게 강력한 주력(呪力)을 행사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색동의 색 조



화는 한민족이 발견한 가장 화려한 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화려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시각에 노출시켜 액(厄)의 접근을 막으려는 의지가 보인다(이선재, 1990: 59). 이러한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색동은 현대무복에서 의미가 변형되어 원삼의 색동 소매에 자수와 혼합하여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화려하게 변화되고 있다.

## 2) 문양과 장식기법

문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을 위한 위로나 바램을 주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거나 신분을 의미하는 매개적인 역할로도 이용되었다. 인간은 때로 자연을 초월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지만 안심인명(安心人命)으로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달래거나 순응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성된 것 중에 하나가 문양에 대한 주술적 의미이다. 이러한 문양은 표현된 물체와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집단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닌 생활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양은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장식의 역할로서 복식에 끼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무복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은 순수한 장식욕구보다는 신앙적·주술적인 면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복에 나타난 문양은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이 주를 이루는데 식물문양은 십장생문, 봉황문, 연화문, 목단문, 길상어문 등이 있다.

굿거리 무복에서 연꽃문양이나 장생문양은 가사(袿紗)와 대(帶)에 나타나고 있는데 굿거리 중 불교적인 신을 상징하는 불사거리나 제석거리에서 착용하는 장삼은 연꽃문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면 연꽃이 피고 서쪽으로 지면 오프라지는 것으로 재생의 의미를 상징하며 윤회설로 통하는 불교적 요소를 암시하고 있다. 장생(長生)은 중국에서 신선사상이 한국에 전래되어 원시신앙인 자연승배와 무속의 영향 아래 완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종교관념으로 인하여 심리적 염원이 담긴 장생문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굿거리 중 창부거리에서 입는 원삼은 봉황문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봉황문은 상상의 조류로 머리는 닭을, 목은 뱀을, 등은 거북을, 꼬리는 물고기를, 날개는 꿩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봉황문양이 보이는 원삼은 소매나 길에 장식문양으로 사용하여 강한 길상의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

무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은 문양 외에도 자수와 금박, 잣물림, 매듭, 파이핑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자수기법은 손수(手繡)와 기계수의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현대 무복에 나타난 자수는 기계수(機械繡)이다. 장식기법으로 금박은 치마 단이나 소매, 깃 부위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금박은 전통금박이 아닌 전자금박을 이용하고 있다. 장식기법은 미적 요소로서 역할보다는 무당들의 개성에 따라 과장된 상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무복에 사용되는 문양이나 장식기법이 전통무복에서보다 과장되고 현란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 3. 착용역할의 변화

무복은 굿이 진행되는 동안 무당과 참여자 사이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은 수행된다. 무당이 신을 모셔놓고 행하는 굿거리에서는 각거리마다 모시는 신(神)에 따라 포를 달리하여 인격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현대 서울굿거리에서 착용하는 포의 형태나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거리별로 착용하고 있는 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원삼

창부거리는 굿거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리로 굿판을 한층 더 흥겹게 하는 거리이다. 이 거리에서 조선시대 무당은 원래 흑색 전복을 착용하였으나 1930년대는 원삼을 착용하였고, 현대 굿거리에서도 원삼을 착용하고 있으나, 원삼의 형태는 활옷과 유사해지고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 2) 철릭

구름거리는 신격이 높은 신을 모셔 중요임을 마치기를 기원하는 거리이다. 조선시대 무복은 머리

〈표 6〉 서울곳에 나타난 무복 중 포의 변화

		형 태 변 화					구성요소		착용역할	
		깃		소매		여밈		색	장식 기법	무복 포 착용 거리
		맞깃	직령깃	아귀有	아귀無	교입	합입			
원삼	전통복	○		○		○		홍색, 녹색		성조거리
	민병속	○		○		○		녹색	금박	창부거리
	김유감	○		○		○		홍색, 남색		창부거리
	이옥선	○		○			○	자적, 홍색	자수	창부거리
	신이행	○		○		○		홍색, 남색	자수	창부거리
장삼	전통복		○	○		○		백색		제석거리
	민병속	○			○		○	백색	жат물림	도당, 불사거리
	김유감	○			○	○		백색		제석거리
	이옥선	○			○	○		백색	금박	불사거리
	신이행	○			○	○		백색	자수	불사, 제석거리
철릭	전통복		○	○	○	○		홍색, 남색		구룡, 대거리
	민병속	○			○	○		홍색, 연두	자수	장군, 성산거리
	김유감	○			○	○		홍색, 남색		대감, 도당거리
	이옥선	○			○	○	○	자적, 홍색	жат물림	도당, 상산거리
	신이행	○			○	○		홍색, 남색	자수	대감, 별상거리
몽두리	전통복		○	○			○	황색	жат물림	만신말명거리
	민병속	○		○		○		황색	жат물림	말명거리
	김유감	○		○		○		황색	자수	가망거리
	이옥선	○		○		○		황색	жат물림	말명거리
	신이행	○		○		○		황색	жат물림	말명거리
동다리	전통복		○	○		○		남색		별성거리
	민병속	○		○		○		황색	금박	대감거리
	김유감		○	○		○		남색	금박	대감거리
	이옥선	○		○			○	남색	자수	신장거리
	신이행	○		○		○		남색	자수	신장거리

에 호수립(虎鬚笠)이나 갓을 쓰고 홍색 철릭을 입었다. 현대 굿거리에서는 서울곳의 경우 청색 철릭이나 홍색 철릭을 입고 머리에는 주립을 쓴다. 산신거리는 상산거리나 상산마누라거리로도 불리며, 역시 산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동다리나 남색 철릭을 착용하였다.

### 3) 몽두리

조상거리에서는 조상들이 순서대로 내려서 자신

들의 의견을 자식에게 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리로 선조신을 받드는 거리이다. 조선시대 무당은 소창의와 평상복을 착용하였으나, 현대 굿거리에서는 평상복을 입기도 하나 황색 몽두리를 착용한다.

### 4) 동다리

별상은 왕위에 오르기 전이나 고귀한 지체의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경우에 그 원귀들이 신격화되어 모

서지는 거리이다. 조선시대 무당은 전립을 쓰고, 동다리를 착용하거나 패자에 청색 전대를 매기도하였다. 서울 근거리에서는 동다리를 착용하기도 하나 청색 철릭을 착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울굿 무복 중 포의 변화양상을 제시하면 <표 6>와 같다.

### V. 맺음말

서울굿에서 착용하는 무복에 나타나는 포의 특성은 巫堂來歷이나 朝鮮巫俗의 研究를 통해 살펴보면 1930년대까지 무복은 전통복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전통무복과 비교하였을 때 형태변화가 크게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무복의 형태에 따른 구성요소 변화는 깃, 여밈, 수구, 소매에 형태변화와 무복에서 사용되는 문양이나 장식기법이 여러 가지 추상개념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과장되고 현란하게 표현되어 무당의 개성이 표출되면서 전통무복과는 다르게 변형되어 가고 있다.

첫째, 형태면에서 무복에 나타나고 있는 포의 깃은 맞깃으로, 소매의 진동부위에 아귀를 내어 손을 꺼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복을 착용하고 굿을 행할 때 활동성이 강조되면서 동작을 편하게 하고 굿거리 중 춤사위의 효과를 위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성요소면에서 무복에 사용되는 문양이나 장식기법의 의미가 전통무복에서보다 과장되고 현란하다는 것이 주시되었다. 이는 주술적인 의미보다는 관객을 몰입시키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변화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굿거리별 포의 종류는 거리에 따라 무복이 일치하지 않고 통일성 없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착용에 따른 포의 의미나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된 것은 무당이 굿거리 주신(主神)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이거나 무복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였다.

이러한 변화양상의 밑바닥에는 사회 변화에 따른 무당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

다 더한 것은 굿판 향유층의 의식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굿판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굿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이상의 굿을 신앙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호기심 충족 내지는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당들도 그러한 욕구에 발맞추어 여러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홍태환, 2002: 141).

이와 같이 현대근거리에서 나타난 서울굿 무복은 현재에 존재하는 영속적인 과거의 사실로서 잔존이며, 보다 넓게는 변화한 시대에 살아남은 유산으로 간주된다.

### ■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1996). 巫堂來歷. 도서번호: 가람古398.3 M883.
- 秋葉隆, 赤松智城(1937). 朝鮮巫俗의 研究. 大阪屋 書書店.
- 김은정, 김용서(2000). 제석거리 무복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服飾, 50(3), 6-12.
- 김용숙(1996). 朝鮮朝宮中風俗研究. 一志社.
- 김태곤(1982).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 문화관광부(2001).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 백영자, 유효순(1986). 巫堂來歷을 중심으로 한 巫俗服飾研究.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30-48.
- 설영환(1986). 無意識 分析. 선영사.
- 손경자, 김영숙(1982). 韓國服飾史資料選集. 교문사.
- 안명숙, 김용서(1998). 한국복식사. 예학사.
- 양미경(1997). 한국무복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服飾, 31, 5-16.
- 양종승(1999). 한국의 무속. 국립민속박물관.
- 유효순(2000). 한국 무속복식의 조형성 고찰. 服飾, 50(6), 5-20.
- 이선재(1992). 유교사상과 의례복. 아세아문화사.
- 이자연(1997). 무속복식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服飾, 32, 213-224.
- 유희경(1975).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영자(1990). 韓國宗敎服飾. 아세아문화사.
- 조아란, 조효순(1997). 조선시대 무속복식연구. 服飾, 34, 195-208.

조효순(1995).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홍태환(2002). 한국의 굿. 민속원.

### ■ 면접자

김유감(1924년생, 무업경력, 50년) 서울시 성동구 홍  
 익동.  
 이옥선(1954년생, 무업경력, 33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신이행(1938년생, 무업경력, 32년) 서울시 중랑구 상  
 봉동.  
 민병숙(1938년생, 무업경력, 51년) 서울시 성북구 하  
 월곡동.

(2003년 5월 23일 접수, 2003년 8월 6일 채택)